

낮선 길 위에서 『여성문학연구』 51호를 내놓다

2020년의 끝에서 『여성문학연구』 51호를 내놓으며 착잡함과 함께 안도감이 밀려온다. 익숙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경험의 시공간을 형편없이 협소하게 만들고, 사람과의 거리두기가 구호가 된, 낯설고 이상한 시간 속에서도 연구자의 시간은 진행형이라는 사실이 복잡한 심회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상시적 비대면 상황이 연구의 시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 낼 수도 있지만, 공포와 위기의 외부 세계로부터 눈과 귀를 단절하기 어려운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연구에 집중하기 어렵지 않았나 싶다. 그런 점에서 빠짐없이 청탁과 투고에 성실하게 응대해준 연구자들에게 편집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51호에는 가을 학술대회의 성과를 묶은 특집 ‘여성-서사의 가능성을 통해 본 뉴-미디어’에 세 편의 글이 실렸고, 이제는 고정란으로 자리 잡은 기획 시리즈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에 다시 읽는 여성작가’에는 윤정모를 다룬 글을 실었다. 매번 추천받기가 녹록치 않지만 이번 호에도 추천 석사논문 한 편을 발굴했으며, 품만 많이 드는 힘든 서평도 어김없이 실었다. 또한 일반논문에서는 정년퇴임한 원로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학문후속세대에 이르기까지 두터운 연구주체들의 참여를 확인할 수 있으며, 18세기 한문소설에서부터 21세기 한국소설의 해외번역 상황까지 연구대상의 스펙트럼도 방대하다.

최근 『여성문학연구』의 가장 큰 변화는 뉴 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 연구 주제와 대상, 그리고 젊은 연구자들의 등장일 아닐까 한다. 텍스트의 다변화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2020년의 우리 학술지에서는 분명 뉴 미디어가 우리의 연구 영역으로 성큼 들어와 어느새 매우 큰 지배력을 점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집 ‘여성-서사의 가능성을 통해 본 뉴-미디어’에 실린 글들은 흥미롭고도 씩씩한 현재의 한국의 뉴 미디어문화를 예리하게 포착해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손혜민의 글(「OTT 서비스와 ‘여성 취향’의 진화—드라마 「킬링이브」를 중심으로」)은 페미니즘 리부트와 OTT 서비스의 활성화라는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통

해 ‘여성 서사’가 활발하게 제작, 배급되고 있는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손혜민은 뉴 미디어의 공간에서 ‘여성 서사’의 확장이 꼭 박수칠 일만은 아님을 지적하고, OTT 서비스의 ‘여성 서사’가 ‘소수자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소비 가능한 ‘취향’으로서만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을 문제 삼는다. 뉴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여성 서사’의 양적 성장이 우선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 역시도 자본의 ‘기획과 관용’ 아래 존재 가능하다는 손혜민의 문제의식은 경청할 만하다. 강은교의 「케이팝(K-pop) 아이돌의 자필 사과문: 손글씨의 진정성과 팬덤의 소비자 정체성」은 학술지에서 연구자들끼리만 읽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한국 대중문화의 속살을 재미있으면서도 예리하게 재현해내고 있다. 한국 문화 특유의 도덕주의가 아이돌 팬덤문화에도 그대로 작동하여 손글씨로 쓴 ‘자필 사과문’이라는 ‘진정성’의 형식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무엇보다 그것이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접속된, 일종의 “소비자 피드백 운동”의 성격을 지닌다는 해석은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 한편 조혜영의 「영화적 게임의 젠더 다양성 재현과 동일시의 트러블: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리즈를 중심으로」는 게임 캐릭터의 젠더 다양성 재현이 게임 플레이어와 캐릭터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즉, 비디오게임 캐릭터와 플레이어 정체성 간의 상관관계를 질문하고 영화적 게임에서 동일시와 몰입의 형성과정을 탐색한다. 게임의 세계에 문외한인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겠지만, 게임이 산업과 문화의 차원에서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대세’인 시대에 ‘교양’의 차원에서도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여성문학연구』의 고정 기획 시리즈인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에 다시 읽는 여성작가’에는 노지승의 윤정모론이 실렸다. 「여성작가는 어떻게 ‘탈(脫)여류’를 했는가: 윤정모 소설에서의 상상된 부계(父系)와 여성혐오」에서 노지승은, 1980년대 후반 문단에서 ‘탈여류’의 일환으로 시대, 민족, 역사를 소설의 소재로 적극 끌어온 정황을 추적한다. 그러나 당대 문단과 문학사에서의 시민권 획득을 위한 윤정모의 시도를 두고 노지승은, 여성혐오를 노출하고 남성폭력을 용인하는 1980년대 여성작가의 아이러니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한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척박한 시대라고밖에 할 수 없는 1980년대에 한 명의 여성작가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안타깝지만 비판적 거리화는 이 기획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듯하다.

한편 또 하나의 불박이 코너인 ‘추천석사논문’에 실린 김수진의 글(「5·18 소설의 젠더 표상 연구」)은 5·18 소설을 젠더적 관점에서 재독함으로써 5·18의 현재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5·18 소설을 기억과 치유의 문제로 해석하는 연구들은 더러 있었지만, 젠더화되어 있는 5·18 기억/서사 자체를 초점화해 분석한 연구는 부족했다. 그런 차원에서 남성 주체에 치우친 5·18 기억/서사의 젠더 편향성을 분석하고, 젠더/국가의 경계를 교란하는 여성 주체의 등장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이 연구는, 그 의도에 걸맞게 과거사 혹은 기억 서사의 젠더 편향성을 문제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한편 젊은 연구자인 한보성의 서평은 2020년의 의미 있는 페미니즘 출판물로서 『원본 없는 판타지』의 존재를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준다. 이 책의 부제인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화사’는 기본적으로 ‘문화’가 함의하는 광범위함만큼이나 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텍스트다. 이 책은 다양한 장르와 매체, 근현대 100여년의 시간, 작가·비평가·연구자라는 글쓰기 주체의 차이 등이 페미니즘이라는 시각으로 묶였을 때 산만함이나 무질서가 아니라 어떤 내적 질서를 형성하고, 나아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가를 증명해 보여준다. 계량화된 업적 시스템의 지배를 받는 현재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서평이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글쓰기일지 모르지만, 동시대 동업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함께 읽어주고, 비평하며, 공유하기를 권유하는 행위는 점점 파편화되고 삭막해져 가는 연구자들의 세계에서 일종의 자선행위 같은 것이리라. 미처 챙겨보지 못했다면 이 글을 통해 이 책의 야심찬 기획과 다채로움에 분명 호기심을 느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호에 실린 일반논문도 무척 다채롭다. 그 가운데 유일한 전근대 시기 연구인 한길연의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부모-자녀 관계 연구(2)－〈옥원재합기연〉을 통해 본 부성의 새로운 가능성」은 엄부자모(嚴父慈母)라는 통념을 벗어난 자녀 양육과 교육에 적극적인 자상한 아버지상을 발굴해 보여준다. 전근대의 서사를 대상으로 젠더 주제를 참신하게 구성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짐작한다면, 이 글의 의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하겠다. 서정자의 글(「김말봉의 대중소설 『짚레꽃』의 사상－휘트먼과 아리시마 다케오, 그리고 아나키즘」)은 일본 소설가 아리시마 다케오를 경유한 휘트먼의 수용을 다루었다. 비교문학적 접근이 얼마나 품

이 많이 드는 연구방법인지를 알고 있기에, 김말봉 연구를 꾸준하게 축적해나가고 있는 원로연구자의 저력을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류진희의 「해방기 여성대중의 부상과 여성봉기의 재현」은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당면과제 아래 해방기 대중정치 의 장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여성봉기가 어떻게 재현에 실패하거나 미달하는지를 집중 조명한다. 한국 역사의 중요한 결절점이라는 점에서 해방기의 의미는 더 부각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자료·텍스트의 발굴과 함께 참신한 접근법이 간절한 상황에서 류진희의 작업은 소중하다 하겠다. 송인화의 「60년대 여성 정신병의 재현과 히스테리: 젠더권력으로서의 의학지식과 성애화된 ‘내면」은 한국일보 현상공모소설을 대상으로 정신의학이 가부장제와 우생학과 결합하여 여성의 내면을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분석하고 있다. 텍스트도 새롭지만 정신의학을 젠더권력의 차원에서 독해한 점이 흥미롭다. 임진하의 「보편을 분유(分有)하는 문학소녀들의 책임기—전혜린의 독서 노트와 베스트셀러 『데미안』의 탄생」은 교양소설의 독자로서 여성의 존재를 문제화하고 있다. 번역자로서의 전혜린에 주목함으로써 그녀에 열광한 여성독자들의 욕망과 1960년대의 독서문화의 한 단면을 부조해내고 있다. 한편 『82년생 김지영』의 일본어 번역을 둘러싼 문화현상에 초점을 맞춘 김미정의 「국경을 넘는 페미니즘과 ‘얼굴없음’의 정동: 『82년생 김지영』 일본어 번역을 중심으로」는 해외 번역 상황을 조명함으로써 이 소설을 대상으로 생산적 논점을 재구성하기 위한 거리화 혹은 객관화를 시도한다. 『82년생 김지영』을 둘러싼 논쟁이 공전(空轉)하고 있고 피로감이 더해가는 지점에서, 새로운 접근법으로 출구를 모색하는 이 글의 전략은 눈여겨 볼만하다. 4.3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재일제주인 여성이 그려지는 방식에 주목한 허민석의 글(「탈장소화되는 제주—4.3 다큐멘터리에서 재일제주인 여성의 재현을 중심으로」)은 희생자 중심의 기억 담론에 머물고 있는 과거사 문제에 관한 대안적 접근법으로서 ‘탈장소’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접근의 키워드는 다르지만, 5·18의 기억서사를 다룬 김수진의 글과 함께 정독하면 유의미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 텍스트의 시간성과 물질성이 다채롭게 포진해 있는 이번 호는 문학과 문화를 학문으로 대상화해야 하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지식과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크게 별다를 것이 없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오는

것에도 심드렁했던 듯하다, 적어도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좋든 싫든 개인마다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2020년은 지구인 모두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해가 되리라 확신한다. 팬데믹의 시간은 우리에게 고통과 인내를 강요했고, 오만했던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뼈저린 성찰로 우리를 이끌었다. 2020년의 끝에서 '새해'라는 '신성한' 주술에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기원을 담아 본다. 그만그만한 우리의 일상을 되돌려 달라고. 교육과 연구, 혹은 그 밖의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서 수고한 우리 모두에게!

2020년 12월, 서은주

특집논문 여성-서사의 가능성을 통해 본 뉴-미디어

손혜민	OTT 서비스와 ‘여성 취향’의 진화 —드라마 「킬링이브」를 중심으로	10
강은교	케이팝(K-pop) 아이돌의 자필 사과문 : 손글씨의 진정성과 팬덤의 소비자 정체성	36
조혜영	영화적 게임의 젠더 다양성 재현과 동일시의 트러블 :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리즈를 중심으로	72

기획논문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에 다시 읽는 여성 작가

노지승	여성작가는 어떻게 ‘탈(脫)여류’를 했는가 : 윤정모 소설에서의 상상된 부계(父系)와 여성혐오	104
-----	---	-----

일반논문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부모-자녀관계 연구 (2) —〈옥원재합기연〉을 통해 본 부성의 새로운 가능성	142
서정자	김말봉의 대중소설 『찔레꽃』의 사상 —휘트먼과 아리시마 다케오, 그리고 아나키즘	170
류진희	해방기 여성대중의 부상과 여성봉기의 재현	199
송인화	60년대 여성 정신병의 재현과 히스테리 : 젠더권력으로서의 의학지식과 성애화된 ‘내면’	221
임진하	보편을 분유(分有)하는 문학소녀들의 책임기 —전혜린의 독서 노트와 베스트셀러 『데미안』의 탄생	251

김미정 국경을 넘는 페미니즘과 ‘얼굴없음’의 정동 284
: 『82년생 김지영』 일본어 번역을 중심으로

허민석 탈장소화되는 제주 314
—4.3 다큐멘터리에서 재일제주인 여성의 재현을 중심으로

추천석사논문

김수진 5·18 소설의 젠더 표상 연구 348

서평

한보성 ‘역사’를 심문하는 비규범적 실천들 374
—『원본 없는 판타지』, 후마니타스, 2020

휘보 384